

크스님 수행한담

옳가지 않으면 망상

“오계 잘 지키는 비결은 할수 있다”는 확신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반지 이빨에 털이 날 수가 있었어. 그런데 바로 이런 두가지 화두가 아주 뚜렷하고 크게 보여주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무자에 떨어져도 안되고 말머리에 떨어져서도 안돼.” 이 말이 끝나자 나는 무엇인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

다. 그 날부터 내 화두는 ‘판치생모’가 됐지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예쁘다 보면 의심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의심이요 의단입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하합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자는 철저히 의심해 그 의심을 뚫치고 공처의 단(疑團)을 형성해야 합니다. 의단은 의심이 크고 견고해 일체의 잡 생각이나 집착, 욕망 등이 조금도 일지 않게 뚫을 말하는데, 의단이 굳건해지면 자신도 세계도 하나의 의심덩어리일 뿐 다른 것은 추호도 없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무’자도 예로 들면, ‘무!’ 하는 화두를 들면서도 조주스님의 말씀을 여의면 안됩니다. 말머리에 떨어지지도 말고 무에도 떨어지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냥 ‘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가입니다. 무가공(無記空). 그래서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소되고 말아서 시주빛 같을 일밖에 없

100여년전 정음 석탄사 인근의 산으로 나가 수행정진중 비위에 걸터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크스님.



가능한 절에서 훌륭한 선지식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선도 중요하지만 초발심자들에게는 열불하기를 먼저 권합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화두를 들지 않고 참선을 하다가 부처님과 인연을 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드리는 말이예요. 참선이 곧바로 가는 길이면 하나 어렵고 체득 기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같은 성질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예요. 참선과 열불은 깨우친다는 도리에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참선하다 열불하면 다들 잘 알았는데 결국 그 둘의 도리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없이 긴 시간도 한 생각이고(無量劫劫即一念). 한 생각 또한 한 없는 시간(一念即時無量劫)이라는 법성계의 도리 그대로죠. 참선

“염불이든 참선이든 매일 밥먹듯 꾸준히” 선업 쌓는 일 불자로서 꼭 해야 할 수행

지요. 그러나 항상 조주스님의 뜻을 여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힘이 생기고 말머리가 즐고 그냥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목조(默照)의 경지예요. 이렇게 화두를 올바르게 들어 참선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냥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깨달음과 단계적 수행경지를 인정하지 않는 화두 참구는 ‘중생 아니면 부처’식의 극단적 가치관을 형성시켜 불교의 보살도 정신, 보시정신, 포교의지를 등한시 하게 됩니다. 참선 장소는 꼭 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잡은 사람은 토폴이나 개인 선방과 같이 혼자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 자리를 못잡은 사람은

염불은 돌아가신 해도 탄탄대로라 최소한 악도에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다시 말해 염불은 헛길이 없이 한 만큼 공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염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에 의해 기복적으로 염불을 한다면 그 의지하려는 나약한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불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약한 마음을 들어고쳐 주는 방법은 오직 고통 밖에 없다는 것을 ‘내면의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 염불을 한다면, 그 거룩한 행위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유상종의 마음법칙은

이든 염불이든 일념이면 풀이 아닙니다. 목직은 틀리다 하더라도 울바로 관할해 나가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생사가 끊어진 자리이자 여래의 자리입니다. 선은 도달하면 깨달아버리는 자체가 있고 염불은 삼매에 들면 모든 티끌이 벗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흔히 선법문 하는 것을 보면 ‘염불은 관문이 아니다. 선만이 관문이다’ 하는데 그건 말에 떨어진 것입니다. 염불도 울바로 한다면 관문이 안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상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 한 구절로도 훌륭히 깨친 도리를 보면 참선문이나 염불문이나 간경문이나 다 같은 보리의 문이지요.

나의 수행일기



유 홍 군

(강서구청 자원봉사계장)

서른이 넘은 나이로 공직에 몸 담은 지 어언 10년이 흐른 어느 늦은 가을, 책 2권을 동료로부터 선물 받았다.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인 크스님과 같은 분이 정말 계시까 하고 반신반의했었지만, 이어서 스님의 삶법으로 이루어진 <무>라는 책도 읽게 되었다. 그러나 <도>와는 달리 이상하게 <무>는 읽어도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길로 한마음선원을 찾아 나선 것이 88년 정월이었고, 정월 셋째 주 법회는 내게 있어서 인생 처음 법문을 듣는 순간이 되었다. 법좌에 오른 크스님의 법문은 평이한 내용의 말씀 같으면서도 그리 쉽게 내 마음에 이해되진 않았다. 그러나 뜻은 알지 못하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지고 무엇인지 자꾸만 더 듣고 싶어

님도록 신행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집사들에게 철야정진을 한 번 해 보자고 제의했다. 집사들은 매일 선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 쉽게 동의했다. 우리 부부는 저녁마다 서울 화곡동에서 안양 선원까지 매일같이 철야정진하기를 근 3개월쯤 하고 나서야 내면에서 조금씩 밀음이 서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쉽게 마음에 확 잡히는 것도 없었고, 또한 깨달음이란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한번은 철야정진 기간 중 직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길대로 즐기고, 그래도 선원에 가서 철야정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 2시에 집에 와 보니 집사들은 먼지 선원에 가고 없었다. 뒤따라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채로 선원 새벽예불에 참석해지고 무엇인지 자꾸만 더 듣고 싶어

무언가 쫓기는 듯한 생활의 연속 마음공부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

졌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불법 인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불법을 만나기 이전의 나는 경직된 공직사회 환경에서 근무해 마음은 여유가 없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달린 내 마음의 내면에선 무언가를 항상 찾았고, 나 자신의 성취감에 대한 불안속에서 방향해

않은 일이었다. 천방지축으로 감히 마음공부 한다는 자가 술먹고 법등을 들어 가서 예불을 드린다고 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가관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예불을 끝내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중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버스안의 손잡이 고리가 내 손등을 탁 쳤다. 그 순간은 별로 아프지 않았으나 집에 돌아와 보니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부어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주일 지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운데 손마디가 자꾸만 부어오르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의사가 “이렇게 손마디의 뼈 조각이 만났으니 이런 영원히 정착하자”



이때부터 불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크스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주인공 주인공이라는 주장자를 마음에 두고 열심히 보고, 듣고, 생각나는 일체를 다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놓고, 맡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1년이

중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버스안의 손잡이 고리가 내 손등을 탁 쳤다. 그 순간은 별로 아프지 않았으나 집에 돌아와 보니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부어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주일 지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운데 손마디가 자꾸만 부어오르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의사가 “이렇게 손마디의 뼈 조각이 만났으니 이런 영원히 정착하자”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정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범열스님

금일의 종단 이대로는 안된다 !! 범열스님과 함께 종단 제3정화 불사에 동참합시다.



기호 5번

우리불교는 민족문화를 꽃피어온 종교로서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국민정신을 계도하는 구심점으로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단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힘을 결집하여 시대적 소명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모략과 분열로 인하여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실정입니다. 오늘의 종단은 21세기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승가 가풍은 되찾아야 하며 계층간, 문중간 존중된 위계질서와 화합승가의 자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힘찬종단과 한민족 통일을 열어나가는 민족종교로서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의 자리여야 합니다.

- 화합승가의 가풍을 세우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 중정, 원로대덕 크스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후학들을 자제로 이끌어주는 출가사문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 문중간, 계층간화합과 위계질서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 중정계를 받은 스님일지라도 선별해 대대면을 단행하여 화합차원에서 종단발전예 동참시키겠습니다.
 4. 중정 중심계를 환원시켜 흔들림없는 전통 수행가풍을 반드시 이어 나가겠습니다.
 5.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교구자율권을 부여하셔서 최대한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21세기 미래의 힘찬종단과 한민족 통일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 승가교육의 체계적확립과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품도조성을 펼치겠습니다.
 2. 재가신도의 체계적 교육과 조직의 극대화도 정교구원을 이루겠습니다.
 3. 대도시에는 조계종 불교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그지역에 있어서도 중심역할을 하여 종단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불교방송, 케이블 T.V 및 불교병원설립에 적극지원하겠습니다.
 5. 사설사람에 있어서도 종단발전차원에서 동참하도록 문호를 점차 개방하여나가겠습니다.
 6. 스님들의 노후를 위하여 승무비 지급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7. 정부의 불교재산관리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범열스님 이력

- 조계사에서 경보회상을 은사로 득도 (57년)
- 범어사에서 동산회상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62년)
- 제방 각지에서 10하안거 성만 (63~73년)
- 불교중앙교육원 제2기 수료 (72년)
- 조계종총무원규정부 정모과장 (77년)
- 대한 운반인협회 운영위원 (75년)
- 대공투쟁 동지회 제2부장 (71년)
- 활인방생운동 중앙총본부장 (80년)
- 한국불교교단공인협회 총남도지부장 (82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